

즐거며 상상하는 나만의 국어사전 이야기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작 모음
2015년~2018년

2018. 11.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57
발행일 2018년 11월 23일



제1회

2015년

주제

우리의 정서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말

제시어

귀엽다, 놀다, 마음, 멋, 사뿐사뿐, 살다, 슬기,
아름답다, 예쁘다, 우리03

4

주제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제시어

한글, 멋, 꿈, 미래, 샘, 함께, 신나다,
해맑다, 정겹다, 만들다

2016년

제2회

21

제3회

2017년

주제

오늘날 국어사전의 의미

제시어

거울, 사투리, 알콩달콩, 양증맞다, 어울림,
잔치, 사전(辭典)025, 새롭다, 보람003, 열다002

33

주제

함께 만드는 우리말 사전, 하나 되는 우리

제시어

그립다, 도란도란, 만남, 반갑다, 벗(=친구),
설레다, 약속, 어깨동무, 웅기중기, 활짝

2018년

제4회

43

들어가기

‘즐기며 상상하는 나만의 국어사전 이야기’는 국어사전과 우리말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국어사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회에 걸쳐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공모전에는 2015년 769점, 2016년 1,300점, 2017년 3,123점, 2018년 4,119점으로 총 9,311점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창의성 40점, 명료성 40점, 재치성 20점, 보조 자료 가산점 10점의 심사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공모전은 10월 9일 한글날에 시상식을 진행하고 한글문화큰잔치의 일부 행사로 수상작 전시회를 열었다.

제 1 회

2 0 1 5

주 제 우리의 정서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말

제 시 어 귀엽다

놀다

마음

멋

사뿐사뿐

살다

슬기

아름답다

예쁘다

우리03

대상

| 서유현

귀엽다 천진난만하고 순수함이 느껴지다.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을 놓고 정신을 팔며 즐기다. **놀다**

마음 집중해서 귀 기울이면 들리는 자신 안의 에너지.

자신감 있는 독특한 향기와 빛깔. **멋**

사뿐사뿐 몸을 살짝 띄우며 가볍게 스치듯 걷는 모양.

살다 살아 있는 것들을 느끼고 공유하다.

시원하고 선명하게 뿜어 나오는 생각의 지혜. **슬기**

아름답다 사람들의 마음에 환한 빛을 일으키다.

마음에 드는 형식과 모양을 갖춰 눈이 즐겁다. **예쁘다**

우리 울타리 안의 함께하는 사람들.

김정현 | 최우수상

귀엽다 매우 사랑스러워 보듬어 주고 싶은 정도의 호감을 느끼게 하다.

살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 호흡과 물질대사, 생장과 증식을 수행하며 외부의 환경에 반응할 수 있다.

스스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사회적 생산을 목표로 삼지 않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다. **놀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고도 일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재치나 능력. **슬기**

마음 사람이 우선시하는 가치가 자리한 장소이자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

아름답다 행동이나 용모가 보기 드물게 훌륭하여 다른 이들의 이상향이 될 만하다.

한 시대에서 유행의 기준이 되고 가장 많은 이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예술적 가치. **멋**

생김새가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기 좋다. **예쁘다**

사뿐사뿐 벚꽃이 소복이 쌓인 봄 길 위를 걸을 때, 꽃잎이 뭉개지지도 흩날리지도 않을 정도로 가볍고 부드럽게 걷는 모양.

우리 대화하는 그 순간에, 말하는 이가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대상들을 지칭하는 말.

우수상

| 정재준, 오동현

귀엽다

내 자식이면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른 자식보다 더 크게 느끼는 감정.

살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해 나갈 수 있는 것.

시험 기간에 해 놓고 가장 후회하는 행동.

놀다

어떤 일을 현명히 대처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능력.

슬기

마음

타인과 잘 맞을 때는 한없이 잘 맞고
어긋날 때는 한없이 어긋나는 것.

아름답다

모든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풍겨지는 느낌.

멋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느끼다.

예쁘다

사뿐사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의 발걸음.

우리

때론 듣는 이가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며
때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듣는 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 말.

장려상

김예원 |

귀엽다 아이 같이 순수하고 사랑스러워
아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다.

살다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다. **놀다**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 **슬기**

마음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성격.

아름답다 외양이나 행동, 마음이 뛰어나 감동을 줄 만하다.

따라하고 싶고, 부러울 만큼 외양이나 행동이 뛰어나. **멋**

감탄할 만한 외모를 가졌거나
자신만의 매력이 있어 보기 좋다. **예쁘다**

사뿐사뿐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표면에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고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

우리 공통점이나 애정을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려상

| 장미영

귀엽다 어린아이와 같은 깜찍하고 꾸밈없는 행동과 표정이 마음을 흐뭇하게 하다.

일이나 공부 등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다.

놀다

마음 사람의 생각과 감정, 감성, 본성 등이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영혼의 집으로 기꺼이 지키고 가꾸어야 할 대상.

통상적인 기준과 틀을 벗어나 파격적인 미를 추구할 수 있는 용기.

멋

사뿐사뿐 저물녘 서해 바다 노을이 서서히 바다를 물들여 가는 모습.

살다 스스로의 삶에 당당한 주인이 된 상태에 있다.

이론으로 습득한 지식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실패를 통해 쌓인 지혜.

슬기

아름답다 보이는 외형적 모습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 일치되어 있다.

마음 씹씹이가 착하고 바르다.

예쁘다

우리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된 모습.

강유미 외 2명 | 특별상

귀엽다 스나이 지지빠이 불문허고 하영 웃음 나질 만큼 아깝다.

재미진 일 허멍 다른 생각 나지도 안허고 지꺼지다. **놀다**

마음 아기 때부터 구짜 가정 살앙온 심성.

출령 다니는 므냥이 뽀 나고 곱따허다. **멋**

사뿐사뿐 출람생이 추록 허지 았으멍 솔째기 발끝 들렁
걸어가는 뽀새.

살다 올 때는 순서 이서도 갈 때는 순서 어신 존재로 생활허다.

행실을 요망지게 허영 사롭들한테 인정받거나 이쁨 받는다. **슬기**

아름답다 녹[논]이 곱닥하기보단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조은 것.

사롭들에게 시기영 질투영 받을 만큼 므냥새가 곱따흔 것. **예쁘다**

우리 곱이[고치/고티] 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허젠 허는 무리.

특별상

| 동춘중학교 3학년 6반

귀엽다

- 「1」 쓰다듬고 싶다.
- 「2」 볼을 꼬집어 주고 싶다.
- 「3」 아기가 나를 보고
방긋 웃을 때 생각한다.

놀다

- 「1」 수업 시간 내내 머릿속에 맴도는 말.
- 「2」 시험 기간에 문득 창밖을 보며 하는 생각.

마음

- 「1」 들리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언어.
- 「2」 때에 따라 한없이 차갑거나 따뜻한 것.
- 「3」 엄마가 음식 하나에도 담아 주시는 것.
- 「4」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 「5」 있는 줄 모르다가 어느 날 문득
혹 아파 오는 것.

멋

- 「1」 일부러 부릴 때는 없다는
무심코 있을 때 드러나는 것.

사뻐사뻐

- 「1」 엄마가 주무실 때 내는 걸음걸이.
- 「2」 숫자 중에 '4'밖에 없는 것.

살다

- 「1」 이 글을 보는 지금 이 순간.
- 「2」 태어난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진 임무.
- 「3」 지극히 당연한 듯하지만 몹시 경이로운 일.

슬기

- 「1」 엄마들의 지혜로움을 이르는 말.
- 「2」 초등학교 때 슬기로운 생활을 배운 이후로
잊어버린 단어.

아름답다

- 「1」 추억의 다른 말.
- 「2」 노부부의 사랑.
- 「3」 화장실에 가면 꼭 붙어 있는 말.

예쁘다

- 「1」 꽃의 상태.
- 「2」 거울 속에는 없는 것.

우리

- 「1」 혼자가 아닌 상태.
- 「2」 하나가 되는 것.

김소정 외 3명 | 특별상

귀엽다

상큼하고 발랄하여 앙증맞은 모습.

마음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간직하는 것.
변덕스러우면서도 따스한 행동을 하는 것.

사뿐사뿐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경쾌하고 때로는 리듬 있게 걷는 추임새.

놀다

여유롭게 갖고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멋

걸모습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화려하거나 단정한 모습.

살다

조화를 이루며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아름답다

황홀하고 신비로우면서 보기 좋은 것.

예쁘다

봤을 때 기분이 좋고 반할 것 같은 것.

슬기

현명하고 창의롭게 대처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같이 있고
화목하고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

아차상 | 이선찬

귀엽다 보기에 깜찍하고 예쁘다.

놀다 즐겁게 또는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다.

마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감정이나 느낌,
생각 따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멋 어떤 대상이 지니고 있거나 그 대상에서 느껴지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분위기나 품위.

사뿐사뿐 고양이 발을 디디듯이 잇따라 발을 가볍게 내딛는 모양.

살다 동물이나 식물이 죽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슬기 사람이 슬픈 일과 기쁜 일 등 온갖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지혜.

아름답다 「1」 보거나 듣기에 썩 좋아서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2」 진실되고 값지다.

예쁘다 마음이 끌리도록 아름다워 보기에 좋다.

우리 개인이나 집단 등의 어느 대상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일컫는 말.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얼누리 | 아차상

귀엽다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서 사랑스럽다.

놀다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낸다.

마음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멋 차림새, 행동, 됃됨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다움.

사뿐사뿐 소리가 나지 아니할 정도로 잇따라 가볍게 발을 내디디며 걷는 모양.

살다 생명을 지니고 있다.

슬기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내는 재능.

아름답다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예쁘다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

우리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아차상 | 이정인 외 9명

귀엽다 「1」 겉모습이나 행동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는 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2」 끝까지 용쓰는 모습이 가소로움을 이르는 말.

놀다 주어진 업무와 같은 의무에서 벗어나 쾌락이나 마음의 안정 등을

추구하며 실시하는 일련의 행위. 의식주와 같이 인간 삶에

필수적이며 시간을 빠르게 가게 하는 효과를 지닌 행위를 일컫는다.

마음 「1」 이성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일을 대신하기도 하며 때때로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일깨워 주는 공간.

「2」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내면의 소리로, 누군가에게

줄 순 있지만 오롯이 회수할 수 없는 감정.

멋 무언가의 개성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려 표현한 것. 또한 그것에 대해

대다수가 느낄 법한 감정으로, 누구나 한번 따라 해 보고 싶게 하는 것.

사뻐사뻐 걸음걸이가 바닥을 밟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소리 없고 날 것 같이.

비밀스러운 분위기보다는 밝은 분위기에 주로 사용된다.

살다 「1」 숨을 쉬면서 동시에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상태.

「2」 여러 상황 혹은 여러 사람과 부대끼며 기쁨, 행복, 슬픔 등의

감정을 느껴가는 것.

슬기 특정 상황에서 머리를 적게 쓰면서도 참신한 생각을 해내게

할 수 있는 능력.

아름답다 「1」 생물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 형태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본질적인 미.

「2」 진심이 담긴 행동이나 마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행복하고

훈훈하다.

예쁘다 생김새나 마음씨가 곱고 보기에 좋아 이목을 끌 만하다.

우리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일시적·지속적인 호칭.

아차상 | 강지혜

귀엽다 예의상으로 사람들이 여성에게 하는 말.

놀다 겉으로는 즐거움을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즐겁지 아니한 상태를 일컫는 말.

마음 「1」 남들에게는 말 할 수 없는 비밀을 숨겨 두는 가상의 상자.
「2」 보이지 않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없는 것을 일컫는 말.

멋 「1」 잘나 보이고 싶고 남들에 눈에 띄고 싶어 꾸미는 것.
「2」 연예인들이 관중에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과 말.

사뿐사뿐 상대방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살다 심장은 뛰지만 마음의 감정이 없고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슬기 「1」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능력을 일컫는 말.
「2」 ‘어리석다’의 반대말.

아름답다 「1」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걸 때 하는 말.
「2」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빛이 날 때 하는 말.

예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때 하는 말.

우리 「1」 좋거나 나쁜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2」 형태가 있는 사물과 사람에게 하는 말.

아차상 | 최원준

귀엽다 성숙한 매력을 풍기지 않으면서도 보기에 흐뭇하고 애교스럽다.

놀다 부담 없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즐기다.

마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겉으로 비춰지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

멋 존경심이나 부러움 따위를 불러일으키거나

간혹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하는 개인 특유의 매력.

사뿐사뿐 힘을 거의 주지 않고 지르밟듯이 걷는 걸음새

살다 생명과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영위해 나간다.

슬기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과 현명함.

아름답다 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오롯이 담고 있어 보기에
기분이 좋고 기쁜 마음이 든다.

예쁘다 하는 행동이나 외형적 모양새가 보기에 아름답다.

우리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애정을 가질 때,
그 집단을 칭하기 위해 부르는 호칭.

아차상 | 김영혜

귀엽다 안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천진난만하고 꾸밈이 없다.

놀다 해야 할 일을 멈추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다.

마음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이

꼭 필요한 것. 표현하지 않으면 저절로 전달되기 어려움.

멋 행동과 말이 과감하여 닳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모양

사뿐사뿐 깃털이 내려앉는 것처럼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가볍게 걷는 모양

살다 「1」 숨을 쉬며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다.

「2」 시련과 기쁨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성장해 가다.

슬기 해결이 곤란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 없이 다가가서

많은 사람이 만족할 만한 해법으로 여유롭게 풀어내는 능력.

아름답다 주변의 모든 것들까지도 맑고 밝게 비춰 주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순간 눈을 떼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다.

예쁘다 「1」(외모) 얼굴의 이목구비(귀·눈·입·코)가 조화를 이루어

생김새가 잘나다. 이목구비의 배치 외에 금방이라도

물기가 떨어질 것처럼 촉촉하고 생동감 있는 외모에

주로 쓰임.

「2」(사물) 생긴 모양이 고와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게 만들다.

「3」(행위) 말이나 행동이 모나지 않고 단정해서 호감을 줄 만하다.

우리 말하는 이가 얼굴을 마주보고 할 이야기가 있는 상대방과

자신을 함께 묶어서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아차상

| 한내초등학교 1학년

귀엽다

「1」 너무 사랑스러워서 볼을 꼬집고 싶을 때.

「2」 예쁜 여자가 “오빠야!” 할 때 쓰는 표현.

「3」 동생이 예쁜 짓을 했을 때 모습.

놀다

「1」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를 하지 않는 것.

「2」 땀이 나고 즐겁다. 「3」 놀이터에서 신나게 움직인다.

마음

「1」 사람 속에 있는 사랑. 「2」 심장이 뼉.

「3」 하루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멋

「1」 그냥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

「2」 형아가 모자 쓴 모습.

「3」 남자가 깨끗이 씻고 이발하고 새로 산 구두에 정장을 입고

나갔을 때 여자들이 ‘까!’하는 것.

사뿐사뿐

「1」 복도 예절. 「2」 까치발로 걷기.

「3」 아래층에 소리가 나지 않게 걷는 모습.

살다

「1」 밥을 먹는 것. 「2」 열심히 미래로 달려가는 것.

「3」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슬기

「1」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도와주려는 생각.

「2」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3」 힘든 일을 잘 해내는 것.

아름답다

「1」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느끼는 생각.

「2」 바라보면서 ‘아!’ 소리가 나오는 기쁨.

「3」 우리가 사는 세상.

예쁘다

「1」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갖고 싶은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

「2」 여자들이 들으면 좋아하는 말.

「3」 우리 엄마.

우리

「1」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무조건 내 편인 사람.

「2」 너와 내가 만나는 것.

「3」 하나 됨.

아차상 | 이은서

귀엽다 양증맞고 껌칙하여 자꾸 어루만지고 싶은 느낌이 들게 하는
모양새나 행동.

놀다 메마른 삶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몸짓.

마음 보이지 않는 날씨의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
이성적 의지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독립적 존재.

멋 세련된 옷을 걸쳤을 때의 맵시에서부터 인품 혹은 연륜에서 풍기는
인간미를 아우르는 말.

사뿐사뿐 고양이가 나비를 잡기 위해 잔디에 작고 말랑한 발로
조심스레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

살다 밥맛이 있다.

슬기 값이 매겨지지 않는 사물 혹은 사람에게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눈.

아름답다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보름달처럼 한눈에 들어와
마음을 훈훈하게 하다.

예쁘다 산들바람이 꽃잎을 흩날리게 하는 듯한 설렘을 안겨 주다.

우리 하나의 심장으로 숨 쉬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아차상 | 윤선아

귀엽다 모습이나 행동이 안아 주고 싶을 만큼 작고 어여쁘다.

놀다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하다.

마음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와 가슴속에 있는 것으로,
기쁨·슬픔·좋음·싫음 같은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는 부분.

멋 그것만이 낼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사뿐사뿐 조심스럽게 조용히 그러나 유쾌하고 가볍게 걸거나
움직이는 모양.

살다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죽기 전까지 스스로 숨 쉬며 있다.

슬기 어려움을 줄이고 기쁨과 이로움을 늘릴 수 있는 생각.

아름답다 보면 기쁨이 샘솟고 좋다.

예쁘다 작고 가지런하고 바람직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우리 나와 너를 비롯하여 여럿까지 함께.

제2회

2016

주 제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제 시 어 한글
멋
꿈
미래
샘
함께
신나다
해맑다
정겹다
만들다

대상 | 허성문 외 2명

오산원일초등학교 6학년 5반 | 최우수상

한글

민간과자본의이치가
배리권이아름다워진
우리고유의문자를,
한국의글과생각의
터전들다지는소중한것

미래

오늘의선택에
따라무한한
성장의가능성을
열어줄수있을때

샘

힘이시자침으로부터
솟아나와온세상을
축축이적시는,보배로운
국가생명의요람

샘

문밖조국에서
의미하는곳

한글

세종대왕님이
정성껏만드시고,
마음을담고
사랑을담아
다른사람에게
전할수있는말과글

꿈

사랑들이침대라는
비행기를타고
자느동안상상의
나라를펼치게되는것

힘있게

서로를향한하얀음으로
도아닌-둔둔한
마음결이어우려서

민들디-

어렵퐁한생각의
밑그림에살을붙여,
생동하는신체로
세상에내놓기-

힘있게

운동회할때
바닥터뜨리는것처럼
함박웃는것

민들디-

자신의손으로
무언가를생게서
하는것

최우수상 | 윤도흠

김유빈 | 우수상

한글
하늘아래
우리민족을
하나로맺어주는
말과글

미래
이제 있을 수 없어
누구든 자유롭게 바라고
걱정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것

샘
세상을 만드는
재료가 담긴
맑은 주머니

꿈
꿈을 꿈꾸는 자라는
생각의 씨앗을,
작은 머릿속에서
싹틔우는 일

행복
하나된
마음끼리
어깨동무하여

멋
오직 하나뿐인
나기름다운

미래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보답의 시간

행복
혼자서는
어려운 일을
착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평화롭게

시나디
기쁨에 치여
신발이 날아갈
정도로 들뜨다

해물탕
생각과 행동에서
도 보이는 상냥함이
가슴과 마음을
자아내다

우수상 | 김정열

멋

사람들 사랑하게 하며,
물건을 물건답게 하는
아름다운 눈높이

샘

깊은곳으로부터 두꺼워지며,
광의가 터져 나오는
물인 샘의 큰
물고름

해밀다

새벽이슬같은 순수로
빛은 어린 아이의
웃음보따리를 펼치다

정경다

마음의 밑바탕에
따뜻함이 넘쳐나서
가슴을 울려다

신나다

몸에 집자던 세포기-
눈을 쓰고 기뻐 뛰며
눈썹과 파란 눈을 볼

박두환 | 우수상

정경다

아름다운 미인들이
웃어 지는 사이
다사로운 분위기가 번진다

신나다

즐거운
상황에
스며들어
몸과 마음이
가쁘다

샘

흔적을 비집고
러거릴 비집고
풍동 피어오르는 물이
싱그럽게 머무는 곳

행복제

내 마음을
걸음 걸음 안에서
동시에 나간다

미래

타자를 날의 향
그로 향

우수상 | 윤태원

김순모 | 장려상

멋

내면과 외면에
뻗어져나오는
슬리브는 아름다운

한글

한글이 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글

신나다

나뭇잎이 새롭고
향기로운이 들어와
뻗어져나오는
신명나는 표정

함께

혼어져있던
모두가 더불어
하나의 마음으로
움치는행위

꿈

안개처럼 내면에
마스와가려져있다가
어느순간 서서히 드러나는
내면의 꿈

함께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미래

어제보다 더
밝고 희망찬데

신나다

심장소리가 들릴 정도로
마음이 즐거워지다

만들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한다

멋

어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스며나오는 매력

장려상 | 박정연

77벗님들(신영숙, 이순이) | 장려상

멋 한글 꿈

흥겹하고 좋은 모습과
기운이 풍겨나오는 것
끝에 안드레는 것

한국사관들의
정신일기를 여만 들고
겨레의 역사를
함께 담담한 우리
말과 글

눈발 떨어치기를
뜻기대하며
마음에 품고 있는
작은 새이

정경다 미래

살가운 마음이 내키지고
웃음이 있는 좋은 사의 모습

눈으로 다가오는
달것이라 믿고
머릿속으로 그려는 세상

날마다 실이길
꿈을 좇아 치게
하는 마음자리

꿈 한글

온갖 뜻과
소리를 마음껏
표현 담아내는
우리글

신나다

흥이 솟아
우글우글한
기운이 넘쳐나

만약 살처럼
산뜻 산뜻하다

해물다 멋

모양이나 품새가
잘 어울려져
조화롭고 씩씩함

장려상 | 원희상 외 2명

당신의 존재를
비추는 조명
멋 미래 앞으로 평생을
모든 가능성

시/나디 마음속에서
간지러움이
외도치다

너와내가
유리되어
함께 샘 빙글빙글 돌아나는
새로움의 원천

글 쓰는 엄마 모임 | 장려상

미래 샘 멋

능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마음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힘의 시작점

꾸준히 일함
매력적으로 드러나
세련되게 화를
모습이 바뀌기

시/나디 해물다

늘 깨달음을 얻는 것
몸과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다

욕심 없이
강한 사람 되고
물처럼 투명하며
깨끗하다

장려상 | 이상실

한글 니와세싱을
모으고있는
우리말글
만들다- 생각들을가꾸어
물씬하게
새로깁니다

정리한다- 개나리만큼
잔디밭의
속삭임
샘 새로움이흐는
터없이말하더

시나디 내친마음이
오세풍에들려거리다-

정영석 | 장려상

옛 궁 미래
내면의기둥과-
외면의매력이
일치할때터쳐
주나오는빛은분위기
누가아를수
있는것은아니지만
모든이들에게
살아있음을주는
피로회복제
온도화지에
하얀색채무늬
완성함새로운
내 인생의 모든것들을

해마다 만들다-

아무도봐지않는
이른아침의눈발처럼
티없이깨끗하고
순수하다-
세상에존재하지
않는것을머리로
생각하며손으로
보여내다-
빛

장려상 | 조민지

미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마지막 시가까지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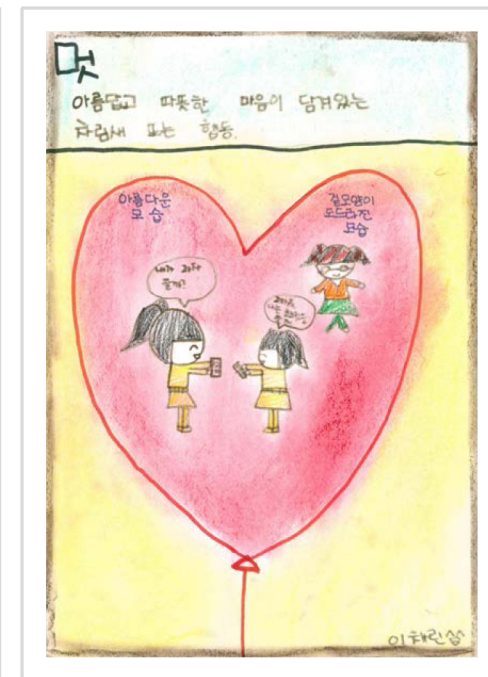
해마다 푸르른 하늘 아래,
춤추고 있는
꽃잎들을 따라
흐르는 물
한치 앞도

시나디 흥분으로 변해버린
사랑을 이치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껏 표현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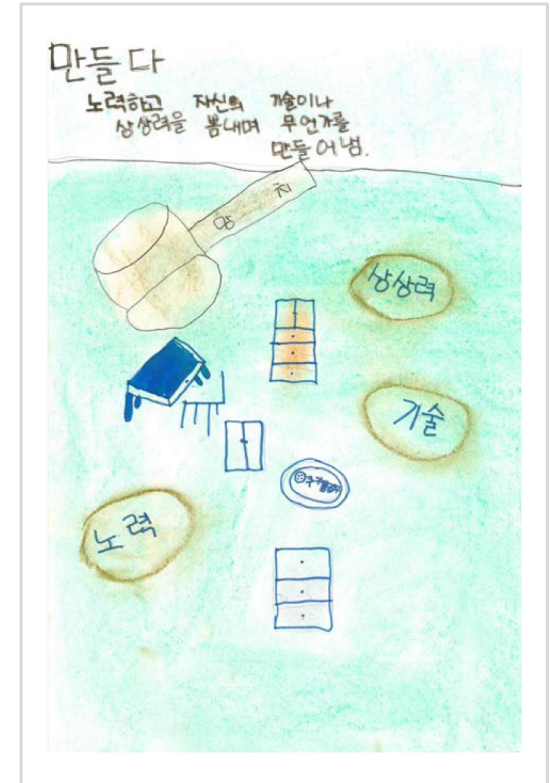
공 원하고 또 원해서
부러워하고 또
만들어내는
미래

정경다 부끄러움을 지냈듯이
리듬을 지니는
눈을 지니는
바라보는 고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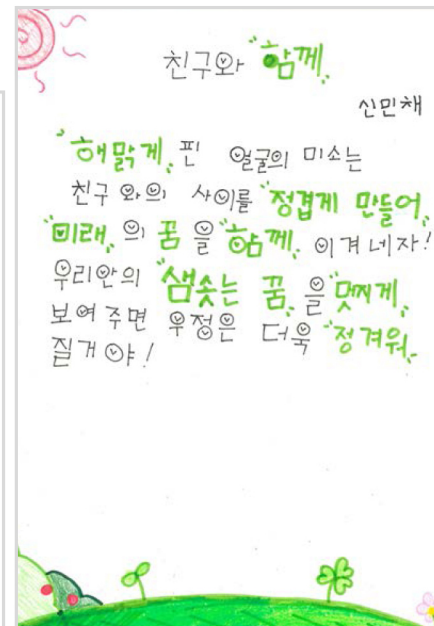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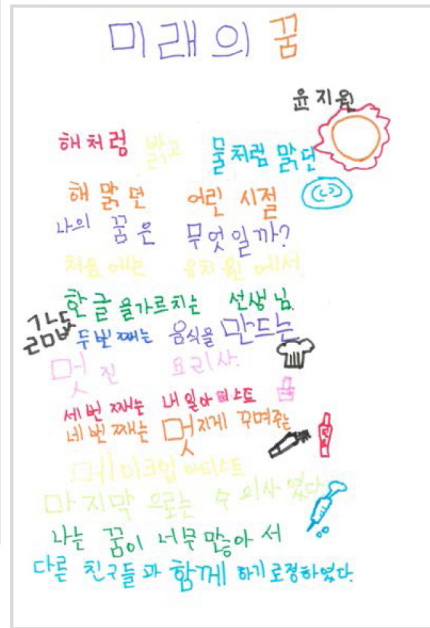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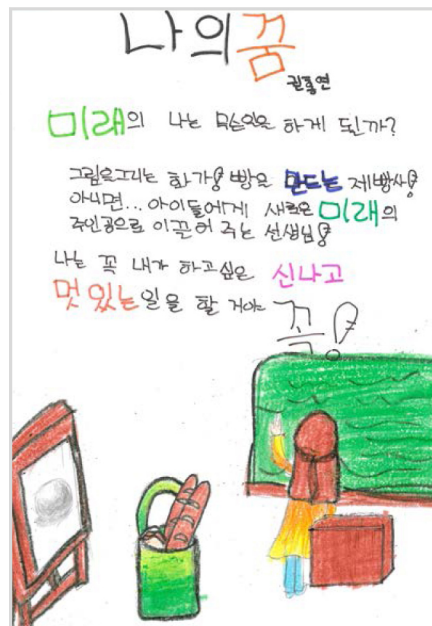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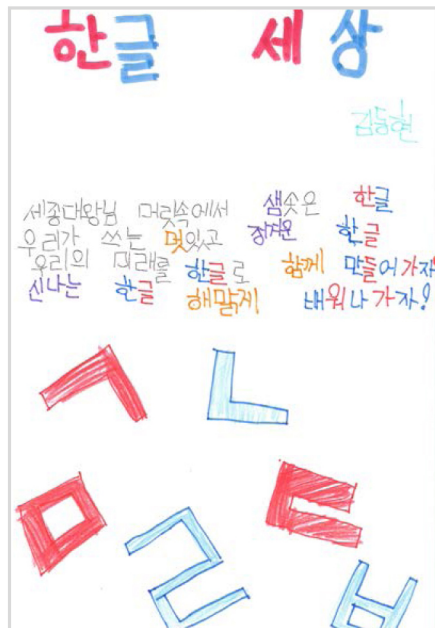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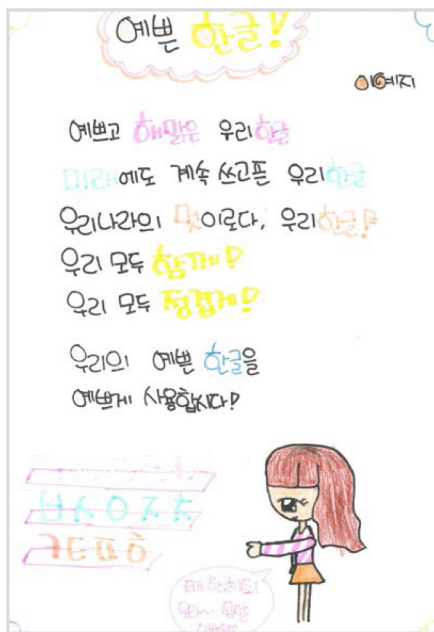
장파초등학교 독서논술부 | 단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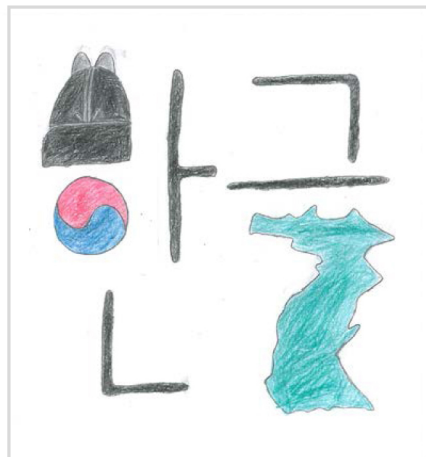
단체상 | 장파초등학교 독서논술부



단체상 | 고봉초등학교 5학년 2반



단체상 | 박민석 외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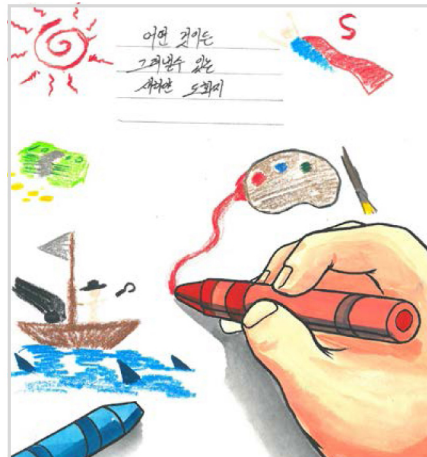
한글

분단된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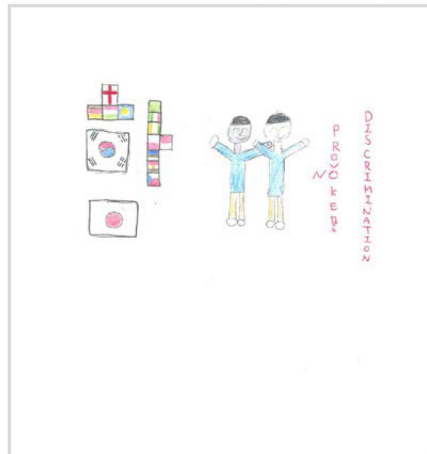
꿈

어두운 시간 속에서 상영되는 너만의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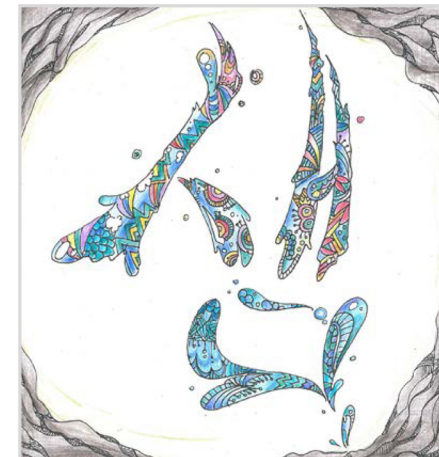
미래

어떤 것이라도 그려낼 수 있는 새하얀 도화지.



함께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샘

작은 구멍에서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제3회

2017

주 제 오늘날 국어사전의 의미

제시어 거울
사투리
알콩달콩
양증맞다
어울림
잔치
사전(辭典)025
새롭다
보람003
열다002

대상

| 노정원

최우수상

| 김경숙

사투리

지역의 문화, 환경에 따라 생겨난
고유한 싱그러움이 스며든 말.

알콩달콩

뿌얀 콩들이 알알이 부대끼며 정답게 지내는 모양새.
또는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르는 말.

앙증맞다

품 안에 가득 안아 주고 싶을 만큼
작고 깜찍하다.

어울림

서로 다른 물결이 만나 잔잔히 몸을 겹치며
하나의 파도가 되는 일. 그런 조화로움을 이르는 말.

사전 (辭典)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단어들의 이름과 뜻이 담긴
출생 기록부.

알콩달콩

콩알 한 쪽도 쪼개어 나누어 먹을 정도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알뜰한 모양.

앙증맞다

보는 이의 몸이 공벌레처럼 작게 오므라들 정도로
그 생김새가 무척 귀엽다.

어울림

다른 성질, 다른 모양을 가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드러나는 보기 좋은 아름다움.

잔치

어떠한 일로 흥이 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한데 불러서
기쁨 보따리와 음식 보따리를 풀어 놓고 나누는 일.

보람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뿌듯함의 부피.

최우수상

| 최재용, 최재원

우수상

| 윤상용

거울

살아 숨 쉬는 매 순간의 장면을 반대로 담아낸
하나뿐인 화폭.

사투리

지역 고유의 흙과 공기 냄새, 지역 사람들의 정서나
문화 등을 양분 삼아 뿌리내린 그 고장만의 싱그러운 언어.

잔치

신명 나는 일이 있거나 혹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의 감정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갖는
화합의 공간. 또는 그런 일.

사전 (辭典)

선조로부터 축적된 인간의 무궁무진한 언어와 지혜를 재료로
삼아, 일부 범주의 것들을 골라내어 견고하게 쌓아 올린 지식의 탑.

보람

하고자 마음먹었던 무언가를 무던히 노력하여 해낼 때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슬며시 샘솟아 온 마음에 울려 퍼지는 밝은 빛.

사투리

각 지역의 개성이나 문화, 토속적인 정서가 배어 있는
고집스러운 언어.

양증맞다

아주 도드라지고 눈에 띄게 귀엽다.

잔치

「1」 서로의 기쁨이나 행복을 축하하며 나누는 일.
「2」 기쁨과 행복의 양식을 나누어 먹는 축제.

사전 (辭典)

모든 지식의 언어들과 낱말의 의미가 채워져 있는 씨방.

보람

어떤 일이 나를 감동시킨 흡족한 결과.

우수상

| 강윤재

우수상

| 유현재

알콩달콩

둘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애정과 배려, 돈독한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모양.

앙증맞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넣거나, 깨물어 주거나,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작고 깜찍하다.

잔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혼자 갖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더욱 행복해지는 일.

사전 (辭典)

인간이 인식한 모든 존재에 대하여 인간이 부여한 이름과 의미 등을 기록한 책.

보람

그 자체가 일의 긍정적 결과로 여겨져 피로, 고통,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싹 가시게 하며 힘든 일도 지속하게 만드는 감정. 또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 주는 일의 가치.

사투리

높낮이와 끝맺음에 따라 저마다 고유한 색을 띠면서도 한데 어우러지는 우리말.

알콩달콩

무엇 하나 모난 데 없이 사분사분하게 모여들어 그 안에 행복이 피어나는 모양.

앙증맞다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작고 아담해 마음속에 쏙 담길 만하다.

사전 (辭典)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길어 올 수 있는 깊고 드넓은 언어의 우물.

새롭다

무언가를 처음 알게 될 때 톡 쏘는 듯한 생생한 감정을 일으키는 데가 있다.

우수상

| 손수민

장려상

| 박상일

거울

자아를 투영해 줌으로써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반성과 성찰의 정서를 유발하는 도구.

알콩달콩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극진하여 사랑과 정을
배려 넘치게 나누는 모양.

앙증맞다

갓난아기의 오물거리는 입과 꿈지락거리는 손, 발가락과 같이
크기가 작고 여림에도 모양새가 웅골차다.

어울림

개성이 두드러지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제 것만을
치열하게 내세우지 않고 양보 속에서 조화를 이룸.

보람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자기만족으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생기를 얻게 되는 것.

거울

타인이나 바깥세상만을 바라보던 두 눈을 비로소
자신에게 향하게 해 주는 소중한 도구.

사투리

하나의 언어가 오랜 시간 지역별로 나누어져 사용되면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개성을 담게 된 표준어의 다양한 변주곡.

잔치

개인에게 머물던 작은 행복을,
함께 모여 모두의 즐거움으로 만드는 장.

새롭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과 우연히 마주치면서 감각 기관의 어딘가가
톡톡 기분 좋게 자극되는 듯하다.

보람

뜻을 이루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닿아
형체를 이루어 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에 드는 뿌듯한 기분.

장려상

| 정수아

장려상

| 정수빈

알콩달콩 서로를 잘 알며 콩닥콩닥하면서도 온화한 상태.

앙증맞다 앙 깨물어 주고 싶을 만큼 귀엽고 사랑스럽다.

어웁림 각기 다른 것들이 모여 하나처럼 조화를 이룸.

잔치 특별한 날에 친한 이들과 모여서 놀며 잠시 쉬어 가는 인생의 첩표 구간.

보람 자신이나 다른 이가 보기에 스스로 마땅한 일을 했다고 느끼는 기분.

알콩달콩 사랑하는 사람과 깨를 볶을 때 쓰는 가장 적절한 분홍빛 표현.

앙증맞다 작고 귀여워 보는 사람들의 심장을 아프게 할 정도이다.

사전
(辭典) 언어학자들이 머리를 움켜쥐고 끙끙 앓아 가며 정하는 단어들의 총체적 의미를 담은, 아주 두꺼운 책.

새롭다 여태껏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뭔가를 처음 경험했을 때 드는 느낌이 짜릿하다.

보람 어떠한 고된 일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 마음속에 스멀스멀 벅차오르는 기운.

장려상

| 남경원

장려상

| 박시현

거울 나 자신과 눈 맞춤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물건.

사투리 귀로 맛보는 지역별 별미.

알콩달콩 서로에 대한 관심이 콩, 달콤한 눈빛이 콩 부딪히는 모습.

사전
(辭典) 흐릿했던 뜻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는 단어의 안경.

새롭다 변화로부터 불어오는 신선한 기분이 드는 데가 있다.

거울 아름다움과 못남을 아울러 대상의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것.

사투리 공간의 특수함으로 인해 생겨난 언어 형태.

어울림 그저 개인들의 일이 아니라 판 전체가 흐드러지게 울려 퍼지는 모습.

잔치 좋은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손님을 초대해 대접하고 흥에 취하는 일.

보람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과 흘린 땀을 되돌아 바라보고, 한층 자란 스스로의 마음을 느낄 때 다가오는 뿌듯함.

장려상

| 정예원

거울 세상과 나를 거짓 없이 담는 찬란한 틀.

앙증맞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알찬 귀여움이 있다.

어울림 나를 잃지 않고도 세상 모든 것을 거스르지 않음.

보람 열심히 노력할수록 커지는 뿌듯함.
또는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일의 값어치.

열다 가려진 것을 걷어 내고 선명하게 드러내다.

장려상

| 윤승현

거울 물가에 함초롬히 핀 수선화가 몸단장을 위해 들여다보는 옹달샘.

사투리 어릴 적 내 아픈 배를 따듯하게 어루만져 주며 외던
외할머니의 달보드레한 주문.

알콩달콩 마음에 봉숭아 꽃물이 든 채로 서로를 곰살갑게 대하는 모습.

앙증맞다 아기의 꿈지락거리는 발가락을 살짝 깨물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이다.

어울림 까만 여름밤에 반딧불이가 알알이 박혀 있는 하늘을 감상하듯,
서로 한 그림을 이루었을 때 조화롭고 어색함이 없음.

장려상

| 구세윤

향기 나는 독서회 | 단체상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분위기.

어울림

혼자 해서는 재미가 없던 것을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하는 것.

잔치

어떠한 어려움을 잇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세상이 떠나가도록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것.

보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했을 때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더욱 커다란 행복.

열다

따스한 마음씨로 굳게 잠겨 있던 누군가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하다.

거울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지만, 마음으로도 봐야 하고
항상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물건.

사투리

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어로서, 지역 정서가 녹아 있고
감정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지역 언어 특산물.

알콩달콩

꼬투리 속의 알알이 든 콩처럼 서로 함께 있어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

어울림

생각이나 움직임 또는 형태가 서로 통하여 조화롭게 섞이고
'같이 함께'가 실현되는 모습.

보람

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수행하거나 끝냈을 때 느끼는 뿌듯함.

단체상

| 삼성현초등학교 6학년 3반

서해고등학교 |

단체상

사투리

소리와 말투는 다르지만 지역의 매력이 톡톡 터지는 말.

알콩달콩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사람 간의 관계.

어웁림

각각은 다르지만 비빔밥처럼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

보람

아주 어려운 수학, 사회 문제를 엄청 힘들게 풀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

열다

처음 만나 어색하거나 다투어서 사이가 멀어진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간다.

사투리

고향 사람과 말하면 고향 생각이 나서 흥이 나는 말투.

알콩달콩

사랑하는 사람과 콩닥거리며 달콤함을 느끼는 상태.

어웁림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스며들어 하나가 되는 것.

잔치

한 사람의 작은 기쁨을 여러 사람이 즐겨 큰 기쁨으로 만들어 주는 일.

열다

무엇이 들어 있을지 모르는 마음을 품고 확인하다.

제 4 회

2 0 1 8

주 제 함께 만드는 우리말 사전, 하나 되는 우리

제 시 어 그립다
도란도란
만남
반갑다
벗(=친구)
설레다
약속
어깨동무
응기응기
활짝

대상

| 너나들이 다문화 국어 모임

최우수상

이지혜, 임재경

그리심디

아름속 비집
거미줄에
이슬처럼
맺혀,
잊지 못하고 기다림의
아름다운 태에
들어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린다.

떠돌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독거림으로, 마음속
물결이 일고 파도가 쳐서
잠 못 이루다.

서글레디

이제라도

서론과 서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내가 곧 다른 친구의
버팀목이 되어 함께 의지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일.

마음 속 빗장을 열고
날선 하던 새 도둑을
한껏
안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모양.

추수작

영글기

서로 다를 것만 같았던
여러 것들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서
너나들이 하는 모양.

그리심디

인생 사진첩에서
다시 보고 싶은 소중한 순간을
꺼내며 그대로 다라 그려본다.

여럿이서 소중한 이야기 조각을
나누며 가지는 소리. 또는 말과 말의
온도가 더해지는 모양.

두근두근

반갑디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이
나타나 마음이 방긋웃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올듯해 들뜬 심장이
먼저 마중나가 기다린다.

서글레디

추수작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껏 최선을 다해 펼친 모양.

최우수상 | 서세정

우수상 | 남승철

그림자

빛바랜 풍경 속에 머물러
시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인연이
삭도는 순간이지-
만들어 갈 추억의
서론.

만남

벗

(=초극)

서로에게
스며들어 곁을 내어 준
편안한 사이

사소해서
사랑스러운 것들이
함께 우리를 나눈 모양

영광

활짝

감촉어졌던
아름다움이
듬뿍 꽃화하게
피어나는 모양

만남

등이상이 만나
서로의 현재 모습을 공유하는 일.

각자가 자신과 가깝다고
정하여 놓은 것들의 집합
라는 그 원소.

벗 (=초극)

영광

신뢰를 지불하고
그대까지 상대방향을
어떤 일을 미리 정하는 일
하는 그 열에 정한 내용.

여가동무

나란장에서서 서로의 여가에게
팔을 기대고 눈높이를 맞추는 행동

영광

귀가 다양한 것들이
모여있지만 어는 하나
은스름함이 없는 모양.

우수상

| 정지원

그리합니다
지나간 것을
불러오는 향기에
장기다.

서로의 단어를 주고받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는 모양.

도란도란

익숙
백지의 미래에 적어놓은 한개의 작은 점.

윙크
동글동글 사이 좋게 보여있는 모양.

호흡
세상을 한껏
받아들이기 위해 가득해 질
준비를 하는 모양.

우수상

김빈나 |

도란도란
모나지 않고 몽글몽글한 말들이
함께 머물러 흘러가는 모양.
도는 그 소리.

벗 (=초기)
모깃이 스치는 인연 이상으로
서로에게 서로의 과거와-
현재가 물들고, 미래를
기개와 함께 물들이기로
예정된 존재.

익숙
다른 고향이나
거래 대상 없이
오직 자신이나
서로에 대한
믿음을 담보로 하며
도장을 찍는 계약

여백동무
피로와 어깨를
대들보습아 서로의 무게를
기개와 지탱하며
안심동체의 마음으로 가는 몸가짐

호흡
어떤 가능성이라도
무한히 품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함박만하게 열려젖히는 모양

우수상

| 남해수

그리잖아
보곤품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허기진다.

다정한 이야기가 평온함 속에 꽃피듯 오르는 모양.
돌고래

탄소
마주하는 모든 대상과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

시글레디
기꺼운 생애가 뭉개뭉개
일어서 신이 나다.

익숙
희망을 품고사는 사람들이
오지 않은 때를 두고하는 참된 다짐.

우수상

| 박소현

그리잖아
시간이란
강물에 흘러간 순간이 아쉬워
그 순간을 돌이켜 떠올리다.

반갑다
마지막처럼,
멀리 있어볼지 못했던 것이
가까워져 다들 볼게 되어
즐겁고 기쁘다.

시글레디
마음은 간질이는
자국은 바람결을
느낀다.

익숙
서로 마음을 느낄수 있는,
서로를 연결하며 묶어둔
매듭.

어깨동무
서로의 거리를 좁히거나
친밀하게 거는 갈고리.

장려상

| 박시울

그리남다-

보고싶은 사람이나
지나간 순간이
마음 속에 그려져
지워지지 않고
계속 떠오른다.

사람들의 정겨운 소리가
포근하게 마구하는 모습.

도란도란

서글레디-

익숙

불확실한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기위해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하도록 다짐하는 것.

행복한 기운이
마음에 채워져서
들뜬다.

어깨동무

서툰의 어지거에
한중의 사랑과
한중의 음원과
한중의 추억을 얻어
나란히 서는 행복.

장려상

| 박주원

그리남다-

누군가의 형상이
머리속에서 툭툭 돌아나 가슴을 간질이다.

한사람의 인생과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서로 맞닿음.

반딧

서글레디-

가슴속에 기본종은
바람이 알고,
파도가 일렁이는듯 하다.

상대방과 나란히서서
어깨로 하는 약속.

어깨동무

환상

얼굴에 환한 햇살이 스며,
밝은 기운을 한껏 펼치는 모양.

장려상 | 조쌍은

반갑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행위로 관계의 시작.오랜시간 기대했던 일을
마주하게 되어 행복하다.

반갑다

성글레디

기다림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익숙

미래에 대한 다짐이자 현재의 생각과 의지의 표현.

호수처럼

습격자인
본연의 이름과 마음을
드러내는 모험.

돈난도란

가까이 앉은 사람들 사이로
애정의 소리들이
바지런히 오가는 모양.서로 다른 두 존재가 어울려 맞닿는 일.
마치 시계판 위
두 바늘이 어떤 한 지점에서
서로 스치듯 가까워지는 모양새.

반갑

반갑다

매우 바빠 왔지만
예상하지는 않았던
어떤 일을 이루자,
기쁨의 물결이 온몸에 복닥여 오다.

벗 (=친구)

인생의 길을 함께 밟아나가는 정다운 존재.
서로 신뢰할 만하여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통하는 상대.

성글레디

가슴속 가장 어린 곳에서
푹푹한 두근거림이
몽글몽글하게 피어오른다.

장려상 | 이은서

그리심

문득내리는 추억의 가랑비에
마음이 시나브로 젖어 들다.아이들이 동그렇게
모여앉아 소꿉놀이 할 때
처럼 정다운과
모뚱함의 피어 나는
모습.

돈난 돈난

벗 (=초너)

살의 여정에서
외곬으로 빠지지 않도록
기꺼이 눈이 되어 주고
발이 되어 주는 존재.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것들이
사이좋게
서로를 보듬으며 모여 있는 모양.

오글거니

흐스스

마음의 끝에서부터
박차오는 기쁨이
얼굴까지 올라와
시원하게 벌어진 입의 모양.

장려상 | 장세희

그리심

지나간 한 순간에
계속 마음을 두고 시체를
자꾸 되감다.멀리있어도
언제나 함께 하는
나의 마지막 조각.

벗 (=초너)

어깨동무

내가 당신의 포근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

언제나 그랬듯이
서로의 곁에 모여있는 모양.

오글거니

흐스스

습기있게
그 안을 드러내는 모양.

장려상 | 박서경

그리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을 단갑게 짓눌러
정실하고 굴뚝갈다.

소란스럽지 않게
진심을 담아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
또는 그렇게 되고 있는
꼭대기가 아름다운 모양.

두란도란

반상리

기다리던 것을 마주해
하던 일을 다 제쳐 둘만큼
기쁘다.

독하고 건드리면
마음이 살아장독하고,
심장이 제 존재를 마구알려
모락지 양에 자빠들하지
못하고 들뜨다.

서늘레디

호수정

온 힘을 다해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 모양.

장려상

김지수 |

그리니

마음한구석에서
무언가 점점 커진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거워 소리.

두란도란

서늘레디

마음에 날개가 닿린듯
이리저리 떠다닌다.

여백동무

서로가 서로의
키에 맞추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모습.

호수정

조선을 다하여 반기고 환영하는 모양.

특별상

| 장파초등학교

특별상

| 라일라

도란도란

마음맞는
친구들이 내는
도란도란의 소리 나는 모습.

연필과 지우개처럼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움을 주는 사이.

벗 (초안)

스릴레디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 입안에서 느끼는 눈처럼
마음에서 느끼는 행복의 준침.

여백동무

키만 같을 줄 알았는데
마음까지 맞아 손을 잡고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점점 더러 친구.

호수처럼

자신의 신나는마음이
얼굴로 살포시 보이는 웃음.

그리움

가슴속에 남아있는
정을 잊지 못하고 갈망하다.

글썽처럼
포여있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듣게 지극은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또는
그런 모양.

도란도란

그리움이 해소되어
대상을 향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반갑다

마음이 들쭉 정도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안절부절못하다.

스릴레디

익숙

서로의 신뢰를 담보로 하여
앞으로의 일을 기억함.

특별상

| 취샤오통

특별상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좋은 인연' |

그림자

혼자 해리에서
유학 할 때 **엄마**가 만든 밥,
생각나는 기분이다 ☺

반갑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거나 자신이 한 사람의
삶에 다가가는 일.

반갑다

머리를 둔 순간에
남아는 얼굴이 눈에 띄었거나,
하고 싶은 일을
드디어 **항상** 있을 때의
기분이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심장이 막 뛰고
계속 두근거린다.

생각나

모양

크기나 높이가 다 다르며
나란하지 않게 모여 있는 모양.

벗 (= 친구)


이미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라
무슨일이 있어도
민간선은 사랑.

새끼손가락 정도
돈장·복사·포팅·사인
하는 것.

익숙

어깨동무

두 사람의 키 차이가 크면
어색해 보이는
친밀한 몸짓.

9직종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원버스를
타고가는 모양. 

양궁

활차

장화 신은 고양이의
커다란 눈만큼
어떤 것을 **코계**여 눈 모양.